

삼성전자, 샤프와 LCD 특허 공유

패널·모듈기술 크로스라이센스 ... 2007년 이후 지속된 분쟁 일단락

삼성전자는 일본 샤프(Sharp)와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및 모듈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공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샤프와 LCD 패널 및 모듈에 대한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8일 발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샤프와 삼성전자는 2월5일 LCD 특허 침해 소송에서 화해하기로 하고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사는 2007년부터 미국 및 일본, 유럽 등지에서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앞으로 LCD 패널과 모듈에 관한 특허를 상호 사용하게 된다.

샤프가 2007년 삼성전자의 LCD가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Texas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이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LCD 특허를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여왔으나 크로스라이센스를 체결함으로써 특허 분쟁이 일단락되게 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8>